

사회적 측면에서 본 프랑스 로코코가구의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 Rococo Style Furniture in the Social Phenomena

한경희*/Han, Kyung-H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how the Rococo style, which reached its summit in the history of French furniture, was realized in its social background and mode of life.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will explore desirable directions for developing our domestic furniture design. For this purpose, existing literature will be referred to and analyzed to arrange into a new system.

Rococo furniture style was the product of joyous and aristocratic living. This was based up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rench interior desig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mode of Versailles Palace. Hereafter, royal styles came into fashion paralleled with the luxuries of the court. Pursuit of new, interesting or beyond-expectation fashions encouraged the creation of new and imaginative forms and designs. The elegant taste of customers, the new techniques of furniture manufacturing, and the unique sales strategies of merchants were social phenomena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ococo furniture.

Furthermore, Louis XV's private and personal life led to society's pursuit of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small and cozy rooms for various uses came into the interior. Accordingly, the scales of furniture became smaller and many types of furniture with their own uses and feminine nature were manufactured, especially by the ébénistes.

Rococo furniture with feminine beauty and refined line, beautiful proportion and elegant sculpture, and solidity and clarity in general, is not only furniture for the use of man, but also furniture in harmony with man.

As we see the stages of develop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Rococo furniture, development of Korean furniture is a common task which can be accomplish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designer, manufacturer, seller and consumer. Based on this co-operation, the furniture industry must make an improvement in furniture design, establish a permanent store in which new works are displayed, publicize activities and sales, promote exhibitions and seminars, and encourage technical development through the government and other interested organizations.

키워드 : 서양가구역사, 로코코

I. 서론

가구는 인간과 건축물을 연결시키면서 건축양식과 실내배치의 영향 아래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건축물내에서 단순한 부속물의 위치가 아닌 실내를 구성하며 완성하는 가구로서의 위치는 방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생활속에서 발전해온 가구는 많은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으며 긴 서구의 역사속에서 그 발전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가구역사를 살펴보면 16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참나무외에는 다른 재료가 없었으며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호도나무와 외국에서의 수입목을 사용했고 기술과 도구 역시 느리게 발전했다. 그러나 진보성

과 우수성을 지닌 이탈리아의 가구와 모델, 제조방법이 보급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앞서있던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가 제후들의 호화스러운 궁중식 화려함을 만들어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장엄하고 더 규칙적인 틀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사치는 하나의 통치수단이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델란드에서조차도 집의 장식은 외부와의 사회적의미를 염두에 두었다. 응접실은 커졌고 천장은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외부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으며 또 과도한 장식품, 조각품, 호사스러운 가구가 의도적으로 장엄하게 보이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앙리 4세 치하인 1608년, 루브르(Louvre)에 작업장을 개설, 장인들을 왕실의 보호아래 두었으며 루이 13세 이후 사회구조가

1) Braudel, F., 주경철 역, 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일상생활의 구조 '상', 서울: 까치, p.434.

* 정희원, 신홍전문대학교 실내장식과 교수

변하면서 귀족계급과 새로이 번창하는 유산(부르조아)계급들이 왕궁을 모방하면서 호화스럽게 장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루이 14세 치하에서 콜베르(Colbert) 재상의 재정적인 뒷받침, 건축원(Académie de l'Architecture)과 왕립가구제조청(Manufacture Royale des Meubles de la couronne)의 설립 등은 모든 공적인 건축공사, 장식미술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주관·제작함으로써, 왕의 거처를 꾸미는 일과 국가적 양식을 창조하면서 새로운 우아함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과거 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취하였던 왕실은 예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적 생활 및 철학에서 유럽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루이 14세 시기의 가구는 그 시대 왕권에 맞는 대단함을 지니면서 분명 가구발전의 도약을 가져왔고 이러한 왕실가구 양식은 모방되고 단순화되어 전 프랑스로 퍼져나갔으며 베르사이유 궁전의 영향력은 전유럽을 통하여 막강한 것이 되었다.

18세기부터 대중화하기 시작한 장식미술의 추세속에서 예술품의 구입, 예술가들과의 접촉은 활발해졌으며 바로크예술이 왕을 찬미하는 것이었다면 로코코예술은 모든 사람²⁾을 기쁘게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편승하여 로코코시대의 가구제작자들은 많은 종류의 새로운 형태와 가구를 개발내지 제작하였으며 프랑스가구사의 정점의 시기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는 프랑스 로코코양식의 가구가 어떠한 사회적인 제현상속에서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18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변화된 생활양식 및 실내배치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 되어 완벽한 가구미의 정점을 이루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가구가 생활 및 사회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로코코양식의 가구에 관한 문헌이 일반적인 시대적상황과 더불어 역사적인 양식면에서의 특징, 용도별로 분류된 가구의 의장적이고도 구조적인 특징, 가구제작자 별로 분류된 가구의 제작방법 및 종류 등을 논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고는 로코코양식의 특징을 연구함에 가구발전을 가져온 사회에서의 제 요소 및 실내배치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문헌을 새로운 분석적체계로 재정리함으로써 가구가 당시의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의 산물임을 입증하는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 가구계의 폭넓은 이해속에서 비록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나 현 우리나라 가구산업을 비교해 볼 때, 그 발전이 요망됨에 따라 사회속에서의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고의 연구대상은 18세기 프랑스 로코코가구 중 왕실 및 상류층가구를 기본으로 한다.

II. 사회적 배경

18세기 프랑스가구는 최소한 3개의 양식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는 레전스 양식, 로코코양식(루이 15세 스타일), 신고전주의 양식(루이 16세 스타일)으로 왕의 집정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레전스 양식은 루이 14세의 원리가 수정되고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 로코코양식으로 발전되어 가던 1700년경부터 1720년경까지로 가구

2) 이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변화유형, 사치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계급은 왕실 내지 부유층 계급이다.

양식은 옛것과 새로운 것을 병용하여 루이 14세양식의 위엄과, 화려하고 우아한 멋으로 로코코양식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루이 14세의 서거후 당시 5세였던 루이 15세를 대신하여 오를레앙공작(Philippe d'Orléans)이 섭정하면서 화려한 예술의 본거지였던 베르사이유는 궁정이 분산되어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다. 귀족들 및 건축가, 예술가들은 섭정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취향에 대한 자주성이 대두되고 새로운 저택들의 활발한 건축 등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기존의 사회가 가졌던 엄격하고 형식적인 것에 대한 반동으로 작은 기쁨에 가치를 두는 환상적이고도 유희적인 실내장식, 가구가 태동되어 루이 15세시기에 그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로코코양식은 프랑스 가구사에서 가장 큰 성공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냉정하면서도 예쁜 용모를 지니고 여성과 국가를 정복한 왕의 명칭과 항상 같이 사용되어왔다. 이 양식은 1740년경부터 55-60년경까지 그 절정을 이루었고 과도기 양식(Transition style)을 거쳐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넘어가면서 그 화려한 곡선의 장이 끝나게 되었다.

새변화의 조짐속에서 루이 15세는 결혼을 계기로 베르사이유궁전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의 성격, 취향과 더불어 새로운 움직임의 양식을 완성해갔다. 즉 루이 15세는 공적인 생활 뒤의 기본적인 안락함을 위하여 사적인 생활을 원하였고 거의 내성적이고 비밀스런 은거취향의 성격은 장중함보다는 가벼움, 위엄과 품위, 존엄보다는 사생활, 친밀함 등을 취하면서 그가 물려받은 여러 왕궁들 내에 작고 친밀한 방들을 설계하고 장식했다. 더욱이 이들 왕궁들 주변에는 작은 성들의 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들은 루이 15세의 애첩들의 거처로 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가구 발전을 가져온 구체적인 사회에서의 제 영향은 다음과 같다.

A. 베르사이유와 파리

국가 권력의 과시, 화려함으로 하나의 국가적 양식을 창조하였던 베르사이유궁전은 서민과 부자, 모두에게 그 모델을 제시했고 왕실스타일을 보급했으며 고객을 매혹하였다. 더욱이 베르사이유에서 채택된 모델들의 보급은 그곳의 조각문양이 17세기말부터 출간되면서 최신유행이 되어 해외에까지 확산되어갔다.³⁾ 루이 15세시기에도 베르사이유궁전은 항상 왕의 생활상을 쫓아가기에 열심이었던 귀족들로 만원이었고 나아가 일반사람들에게까지 베르사이유는 하나의 최신유행의 본거지로서 자극·충동·영감이었으며 파리의 몫은 실행 및 제작이었다. 베르사이유를 모방하는 것은 오로지 파리를 중개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는데, 이는 파리가 노련한 전직기술자의 대이동지로서 베르사이유와 같은 가구를 제작 할 수 있었고⁴⁾ 우아한 취향의 중심지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베르사이유의 각국대사들, 상류층인사들 및 대중들은 왕실의 범주에 속하는 파리가구의 수준에 경탄했으며, 파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장인들과 상인들이 제작판매하는 아름답고 호화로운 가구들을 주시함으로 유행을 만들어 나갔다.

3) Hayward, H., World Furniture, London: Paul Hamlyn, 1965, p.81.
4) 일례로, 대부분의 지방가구는 통나무로 제작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비니어링과 삼각새공을 이용한 에베니스트가구를 구입할 수 있는 부(富)가 주로 파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파리에서만 유행이 가능했다.

진정 베르사이유와 파리는 왕실의 두 주요도시로써 프랑스가구예술의 보급확대에 있어 성공적인 쌍둥이 역할을 하였다.

B. 사치와 유행

의복, 주거 등의 다양한 요구와 관련하여 사치는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수특권층에게 관련된 것이다. 서구의 궁정에서 비롯된 사치는 소수특권층에게만 적용되어 일반 가난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수준의 차이를 반영했으며 영원한 계급투쟁, 문명투쟁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상호호혜, 교환으로 이어졌다. 후지키는 '사회가 도약하는 힘을 얻는 것은 생산에서가 아니다. 사치야말로 중요한 촉진요소이다'라고 평하였다.⁵⁾ 베르사이유 궁전은 분명 사치의 본거지였으며 그곳에서 루이 14세는 금은도장의 가구와 함께 사치를 즐겼으며, 당시 궁에는 각 예전의 요구와 일치되는 의자의 형태 및 용도가 생겨났으며 그 수는 무려 1323개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의 사치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시설들 특히 난방이나 위생시설과는 거리가 먼 건물과 실내장식, 가구에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르사이유궁전의 화장실미비, 겨울철 연회시 '겨울의 방'에서 왕의 식탁의 잔이 언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직은 삶의 질을 위한 시설보다는 삶의 보여지는 면이 더 강조되었고 발달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로운 식사매너, 식사실이 프랑스에 널리 퍼진 것은 사치를 누릴 수 있었던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모든 상층한 의식으로서의 식사는 부업이나 손님들 옆에 시종하는 하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의 의미였고, 이 새로운 사치가 영국과 프랑스에 퍼진 시기는 18세기의 일이었다. '만일 60년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온다면 식탁의상, 풍습에 관한 한 파리를 알아 보지 못할 것이다.'⁶⁾ 라고 1766년 뒤크로가 기록했으며 이때 식사실의 발생도 사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치는 한 사회를 부양하고 매혹시키는 수단으로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한 세련됨, 다양함으로 생활환경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치와 편승하여 소위 유행도 사회, 경제, 문명의 도약, 삶의 즐거움에 대한 증기로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들이 작용하여 되는 것이다. 17세기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유행은 사실 18세기에 와서야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활발해 지면서 진정으로 지배적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의미로 사람들이 유행을 좇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은 역시 특권층 사람들이 그들의 추종자들과 구분되기를 원하면서 항상 새로운 유행을 추구해가려는 변화의 욕구가 강했으며 이는 독창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행은 이전의 언어를 낫고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탐구하는 것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이며, 유럽의 유행은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것, 가장 세련된 것이 아니라 가장 경탄받는 것이 지배적인 법칙이었다. 가구의 유행을 예로보면, 과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남에게 내 보이는 대표적인 가구였던 옷장(armoire)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단지 옷이나 보관하는 기능으로 연회실에서의 퇴장을 겪게 되었다. 반면 문서장(secrétaire)이 크게 유행

했으며, 옷상이 가졌던 최고의 자리는 서랍장(commode)이 차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초기에 생겨난 이 서랍장은 지난 한 세기동안에 다듬어진 여러가구의 우아함의 결과물로서 새 유행이 되었고 곧 사치스런 가구 곧은 선과 굽은 선, 두툼한 선과 날씬한 선들의 복합체 및 비싼 목재, 청동장식, 락카 등의 세공장식으로 저택내의 중요한 위치에서 보여주는 가구, 부유한 사람들의 가구가 되었으며 19세기에 가서야 널리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소수 상류층계급에서 파급된 유행이 뒤늦게 추종자의 것으로 전해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로코코시대의 많은 다양한 가구의 출현 및 가구미의 완성도는, 과거 큰 저택에 비해 모든 것이 고가(高價)가 되어버린 파리의 상황에서 덜 웅장하지만 더 쾌적한 소규모의 주택이 건축되면서 사치의 초점이 실내 및 가구로 옮겨졌기 때문이며, 사치에 근거한 유행의 광기, 번덕스러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행, 새로움의 추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과거 그토록 느리게 진화되었던 가구 발전의 속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광복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유행은 항상 새로운 것에 갈급하던 소수특권층의 고색, 그리고 이들을 자극하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던 진파사 주 상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C. 고객과 공급자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새로운 가구에의 연속속에서 사회의 일부가 선택했던 일정, 유행은 안목 높은 고객에 의해 많은 애호가들의 경쟁을 가져왔다. 문주에 이 부르조아계급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훌륭한 가구에 심취해 막대한 지출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화려한 가구로 채워나갔다. 수구에 대한 아늑다움, 친근함,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관례가 되었고, 상류층인사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이를 확인하고 즐기기를 원했다. 단지 사용만의 복식을 넘어서 가구와의 사치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고객들은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다.

18세기 가구고객중 가장 유명한 여인은 루이 15세시기의 뽀뽀두르부인(Madame de Pompadour)과 루이 16세 시기의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이다. 이들은 그들의 자신의 위왕의 진보에 따라 장식, 색, 재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비범한 가구의 표적을 남기며 그의 개인 저소를 위하여 가장 값비싼 가구를 주문하였고 이는 유행을 낳게 되었다. 뽀뽀두르부인은 특히 장식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의 적극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겸했다. 세브르(Sèvres) 자기공장에 대한 왕실 후원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동방의 수입품 특히 옷칠가구에 흥미를 보이며 그 유행을 만들어 내었다. 더욱이 그녀는 매혹적이고도 실용적인 가구 - 문서장, 서랍장 그리고 베르니(Vernis) 및 옷칠가구 등을 당시 유명했던 상인, 듀보(Lazare Duvaux)에게 주문했고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마호가니가구를 많이 소유한 사람중 하나였다. 그녀는 죽기 전날까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가구수에서도 주문을 그치지 않았으며 이 특권층을 주고객으로 삼았던 상점은 다시 이를 선전으로 삼아 구매의 전환을 만들면서 유행시켰다. 더욱이 로코코시대의 프랑스는 중산층의 수와 부가 여러배로 증가하여 이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도 이와 비례하여 요구되었고 이들의 표적은 우선 상류층 고객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고객들은 또한 직접 장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의 지지자가 되기도 하고

5) Braiudel, F., 주경철 역, 1995. p.253.

6) Hayward, H., 1965. p.85.

7) Braiudel, F., 주경철 역, 1995. pp. 422~423

8) Braiudel, F., 주경철 역, 1995. p. 283.

도면과 납으로 만든 모형, 때로는 제작을 위한 1:1모형을 요구했으며, 직접 공방을 방문하기도 하여 제작도면에 의한 치수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위협을 제시하기도 해⁹⁾ 도면의 주문, 토의, 아이디어의 제시 및 해결방법이 고객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발전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공급자의 역할은 주로 상인(marchands-merciers)¹⁰⁾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록 가구가 그들의 손에 의해 제작되지는 않았으나 창의적인 발상으로 예술가를 고용했고 많은 기술자들로 하여금 제작에 함으로써 판매의 차원을 넘어서었으며, 특히 그들은 에베니스트(ébéniste)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장인들을 협동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장인조합에서조차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양식, 유행을 추구하는 가운데 고객들과의 매우 가까운 접촉관계에서 그들을 적극 유치했으며 프랑스 가구의 두 측면 즉 제작과 보급에 큰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단순한 판매인 이상의 개혁자 및 선전자였다. 에베니스트들이 즐겨 사용했던 가구표면의 꽃무늬 상감기술도 1740년경 에베르(Thomas-Joachim Hébert)에 권유에 의해 시작되어 가구제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형태의 작은 탁자류를 제공하면서 정력적으로 그 수요에 응해나간 사람들도 이들이었다.¹¹⁾ 또 유사한 이름으로 많은 수의 소파를 만들어냈던 사람들도 이들 상인과 가구제작자로서 이들의 번덕 내지 탐욕의 결과였다.

그들은 고객과 문양가, 가구 제작자(특히 에베니스트)사이에서 끊임 없이 새로운 유행의 추구하고 모색, 자극으로 항상 민감해야 했으며, 또 고객은 그들의 욕구를 인지하고 전하고,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 내지 정신으로 완벽에 접근하여 창조자와 제작자사이의 문제제기, 고객과 장인 사이의 세심한 관계, 상인들의 창조적인 중간역할이 모든 것이 18세기 프랑스 가구발전에 활기를 준 중요요소라 하겠다.

D. 가구제작자

18세기 프랑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가구제작자는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뮈니지에(menuisier, 소목장)이며 다른 한 부류는 에베니스트(ébéniste, 나무판과 세공일의 소목수)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직종을 엄격히 구분하는 동시에 1743년 하나의 동업조합을 결성하였고 극도로 엄격한 체제하에서 작업의 질을 확보, 가구제작의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뮈니지와 에베니스트는 제작, 모델, 스타일면에서 양립된 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신으로 제작하였으나 조합대표에 의해 가구품질에 관한 통제,¹²⁾ 새로운 제품 및 외국 출신의 장인들을 견제하면서 규정을 정하였다.

뮈니지에는 대목장과 구별되어 의자, 침대, 탁자, 장 등의 견고한 통나무가구(에베니스트의 가구처럼 얇은 나무판을 붙이지 않은 가구)를 다루는 사람들로써 주로 프랑스인 태생이 많으며 오랜 전통하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직업이 전수되어 하나의 왕조를 이루었던 제작자들이었

다. 이들이 작업하던 주된 지역은 파리의 북부이며 여기에 왕궁의 의자를 제작하던 장인들도 있었다. 이들의 기술은 이미 고착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랜 전통으로 인하여 적용되기 힘들었으며 뮈니지에에 의한 기술은 18세기동안 거의 변형되지 않았다. 반면 이 동업조합에 새로이 등장하면서 '18세기는 가히 에베니스트의 시기'라 칭함을 받은 후자의 제작자들은 역사가 짧다. 중세이후부터 막강했던 대목장(charpentier)과 소목장조합조직은 17세기에 이르자 이 제멋 기술되지 않았던 참신한 에베니스트들이 등장함에 따라, 그들의 짧은 전통으로 초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서서히 그들의 참신한 새 기술로 고객에게 새로운 매혹의 가구를 공급함에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들의 많은 수는 주로 외국태생으로 루이 15세시기에는 네델란드인, 루이 16세기시기에는 독일출신이 많았으며 뮈니지에와는 달리 장인가계에서의 대물림이 아니라 견습 내지는 대가의 동료로서 훈련을 쌓아 장인으로서의 경력,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파리의 바스티유 동쪽, 생-탕투완구역(Faubourg Saint-Antoine)의 특징지역에서 작업했다. 이는 이 지역이 '세느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목재를 강에 띄우거나 배로 가져올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이었다.'¹³⁾ 이들이 제작했던 가구의 방법은 가구표면에 얇은 나무판을 상감수법과 함께 붙임으로서 뼈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실내공간에 새롭게 조화를 이루었던 실로 많은 수의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에베니스트들에 의한 가장 완벽한 창조물은 서랍장과 작은 탁자류이다. 에베니스트들은 그 제작에 있어 루이 14세시기의 상제와 풍부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신의 추구를 위하여 건축가의 도면보다는 상인의 특권인 새로움속에서의 상상력을 더 이용하였으므로 그들과는 밀접한 관계였고 완벽한 기술과 함께 18세기의 가구발전에 진정한 의미의 정복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점으로 보아 프랑스내에서 전통적으로 작업하던 뮈니지에의 느린 발전의 속도와 17세기에 등장한 에베니스트들의 새로운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기술에의 빠른 정복은 매우 대조적이라 할 만큼 프랑스가구사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17세기에 많은 해외의 에베니스트들이 프랑스로 이주해 온 계기가 되었던 베르사이유궁전의 건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베르사이유의 또다른 공헌이요 결실이라 하겠다.

이 두 종류의 장인그룹 이외에도 선반공(tourneur), 등세공인(vannier), 조각가(sculpteur), 뮈니지와 협동체계를 이루는 칠, 금칠공(peintres-doreur), 융단장식업자(tapissier, 뮈니지가구의 판매도 겸하였다)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에베니스트들이 루이 14세기 이후 그들 가구에 금빛청동 조각장식을 시작하면서 연관관계를 가졌던 청동제작자들인 주조공(fondeurs-ciseleurs)와 금도금공(cisleurs-doreurs), 그리고 세공품제조인(tabletier)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구제작에 연관되어 하나의 가구를 위하여 철저히 분업화되었고 뮈니지와 에베니스트손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주 세심한 구분의 전문화와 통합의 과정이 기술의 통합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9) Verlet, P., 1982, Les Meubl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4-17.

10) 공급가이며 동시에 판매를 뜻하는 상인 즉 marchand과 잡화상인을 뜻하는 mercier의 복합어으로써 이들은 주로 가구와 실내장식품을 다루었다.

11) Whitehead, J., 1992, The French Interior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 Laurence Kings, pp.129-135.

12) 가구품질에 관한 통제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이 각 공방을 방문, 확인된 제품에 'JME'(Jurande des menuisiers-ébénistes의 머리글자, 뮈니지와 에베니스트의 조합단체) 및 제작자의 이름을 각인하도록 했다.

13) Whitehead, J., 1992, p. 126.

Ⅲ. 실내배치에 따른 가구의 변화

17세기 말 실내배치의 예술은 건축의 주요주제였으며 블롱델(Jacques-François Blondel)은 이 분야를 선도해 갔으며 문제는 항상 상충하는 두 원칙 즉 외부의 고전적 비율을 유지하는 것과 방 내부를 안락하고 실용성있게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였다. 특히 방의 분배문제는 시대가 발전할 수록 쓰임새에 따라 다양해졌으며 꾸며진 방식으로 방의 용도와 사용자 나이가 생활양식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택의 실내는 이미 크게 두 부분-공식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졌고, 1700년대 초에는 공식적인 방, 일상적인 방, 개인적인 방 등으로 나뉘게 되었다. 점차 저택평면배치의 목적은 첫째가 거대한 규모로 과시를 나타내는 접대용 공간, 두번째는 일상적인 친지들과의 만남의 자리(사교), 세번째로는 안락하고 편리하고 실용적인 생활공간이었다. 루이 15세를 비롯하여 귀족들은 루이14시기의 실내배치-용도 구별 없이 방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단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방을 거쳐야 했고, 심지어 하인들도 그들의 일을 위해서 이들 방을 모두 지나야 했던 불편함 즉 사생활의 보장이 없던 배치를 피하게 되었다. 반면 실내의 화려함을 지니면서 더욱 사교생활에 힘쓰면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누리기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실내배치와 가구가 변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와 안락, 긴밀한 친교의 생활 나아가 모든 것이 기분 좋고 안락하기를 원했으며, 쾌적하고도 매혹적인 두 형용사가 새 유행의 표현어였으며 그 결과 오래된 집의 개조 및 새저택의 건축과 더불어 많은 용도의 아늑한 방들이 사적인 부분에 생겨났다. 그 결과 저택내의 공식적인 부분(Appartement de parade)에서의 회랑(galleries), 대기실(salon d'attente), 응접실(salon)에서는 과거의 가구 즉 작은원탁(guéridon), 콘솔(console), 등없는 소형의자(tabouret), 장의자(banquette)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반면 일상적이고도 사적인 생활을 위한 부분(Appartement de commodité)의 실내 배치는 세분화되어 전실(antichambre), 접견실 및 집무실(cabinet)¹⁴⁾, 응접실(salon)¹⁵⁾, 옷보관실(garde-robe), 때로는 목욕실¹⁶⁾을 수반하고, 부인용 방(boudoir), 도서실(bibliothèque), 식사실,¹⁷⁾ 침실 내지 객실 등 서로 다른 용도의 방들 그리고 여름용·겨울용 방들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구간의 구분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전문화 내지 특수화된 가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즉 개조에 따른 새건물에서의 새로운 스타일의 실내 배치, 젊어진 실내장식이 새로운 개념의 가구로 완성되었고, 과거의 과시용 방들이 작고 친숙한 여러 용도의 방으로 바뀌면서 대신 화려한 많은 수의 가구로 사치의 욕구가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사치에의 욕구가 가구로 옮겨지면서 값비싼 가구가 제작되었고, 작고 친밀한 환경에서의 격식없는 생활에 대한 개념이 가구의 다양성과 증가를 가져오게 했으며, 나아가 가구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단지 실내의 부속품 내지 악세사리의 위치가 아닌 인간과 동일한 위치로 승격되었다¹⁸⁾(그림 1 참조)

14) 사교적인 친교를 나누었던 주된 공간(reception room)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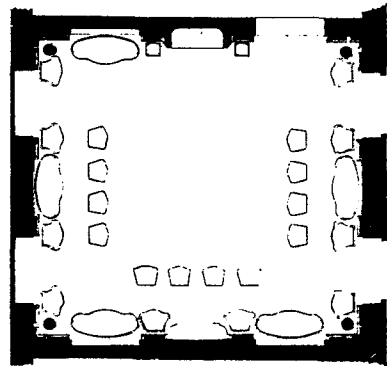
일일하고 사적인 담화를 나누며 책과 그림등을 둘 수 있는 곳이다.

15) 다른 방 보다 더 장식적이고 크며 제일 중요한 방이다.



〈그림1〉 로코코시대 말기의 식사실

격식없는 삶의 욕구는 편안함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접견실 벽에 일렬로 붙여서 배치되었던 실내 장식의 일부로써의 개념이 더 강했던 벽부착용 의자류(sieges meublants)이외에, 실내중앙부에 실제의 대화에 필요한, 좀 더 작아진 일상용의자류(sieges courants)를 두어 실내의 친숙한 가구배치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이는 이 시대의 빈번한 사교생활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의자는 점점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변형되었는데 이는 역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삶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충족시켰다. 예를 들어 각 용도별 의자의 형태 뿐 아니라 각 종류의 휴식상태를 취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진전되어 그 세련됨과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넓어진 여성의 복장에 대한 배려는 의자의 형태를 보다 넓게 또 의자 팔걸이를 등편쪽으로 후퇴시키면서 변화시켰고 많은수의 의자명칭이 여성으로 되어 있음은 탁자가 주로 여성용이었다는 점과 이어지고 있어 흥미로운 것이며 의자의 이러한 다양성은 새로운 작은 실내에서 각 행동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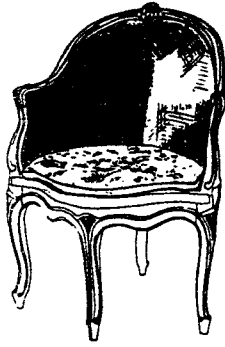


〈그림2〉 벽 부착용 의자류(Sieges meublants-sofa 5, fauteuil 10)와 일상용 의자류(Sieges courants-fauteuil 12)를 보여주는 18세기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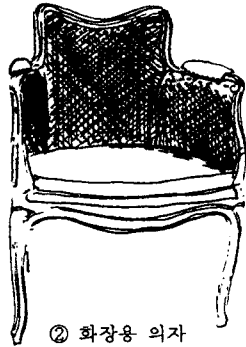
16) 상하수도시설의 미비로 목욕실은 매우 드물었고 때로는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위생면보다는 쾌락면이 강조되었다.

17) 1750년경 식사실이 그에 맞는 가구와 함께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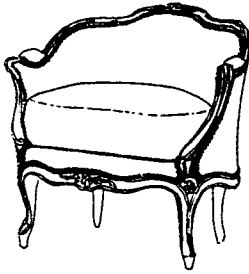
18) 이는 18세기의 회화작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를 봄으로써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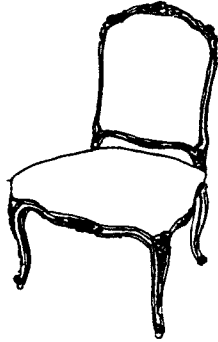
① 책상용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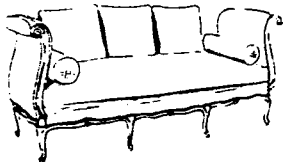
② 화장용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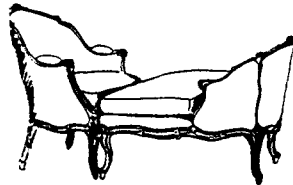
③ 안락의자(Marqu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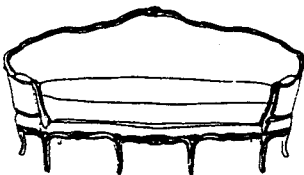
④ 보조의자(Side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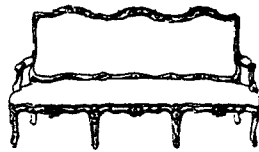
⑤ 휴식용 침대(Lit de repos)



⑥ 장의자



⑦ 카나페(canap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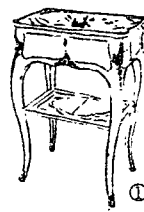


⑧ 카나페(canapé)

<그림3> 로코코시대의 의자류

른 사용자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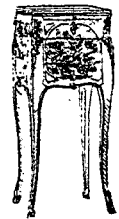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용도의 그리고 많은 이름의 탁자들이 제작되었다. 그들은 17세기의 과장됨을 버리고 크기도 작아지면서 곡선의 윤곽과 구부러진 다리로 독서, 글쓰기, 화장, 차 마시는 등 각 순간의 용도에 알맞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보다 작은 형태로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탁자는 대개 이동이 가능한 작은 탁자들인데 편리함을 추구했던 결과일 뿐 아니라 이들의 많은 수가 여성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혁명전 구제도하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 위치의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보겠다(그림 1, 4 참조). 더욱이 루이 15세 시기에 대유행하던 실내에서의 놀이-도박은 갖가지 형태의 탁자와 의자(voyeuse-의자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팔을 기댈 수 있게끔, 의자 등판상부에 팔걸이가 부착된 의자)로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전문 용도의 가구 발생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① 소탁자



② 소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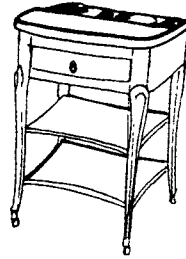
③ 소탁자



④ 독서용 탁자



⑤ 놀이용 탁자(Tric-Trac)



⑥ 냉동탁자(Rafraichissoir)



⑦ 카드놀이용 탁자

<그림4> 로코코 시대의 탁자류

친숙한 크기의 실내와 함께 많은 수의 수납용 가구들도 점점 작아지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 18세기 초반의 수납용 가구는 침실이나 접견실과 같이 주로 작은 내실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공식, 비공식 방들의 성격이 다소 포괄적으로 변하고 많은 용도의 작은 방들이 많아짐에 따라 에베니스트 가구들이 점점 중요한 방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호화스럽게 치장되었다.

결국 과거의 지나친 격식에 의한 삶에서 벗어나 작고 친숙한 여러 용도의 방에서 안락하고 친밀한 사적인 삶의 방법이 추구되면서 이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종류의 사치한 가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IV. 로코코양식의 가구

A. 종류

가구의 종류는 흔히 뮤니지에 가구와 에베니스트 가구로 분류하여 정리되고 있으나 본고는 가구의 배열과 위치에 따른 이동성의 문제 또, 작은 가구와 큰 가구사이의 첫수면을 고려할때 다음 두 종류로 구별해 본다. 첫째는 건축적인 가구(혹은 건축일체화가구)요 둘째는 안락하고 쾌적한 가구(일상용가구)이다. 전자는 대개의 경우, 벽에 등을 대고 거의 움직임이 없이 크고 무거운 가구가 대부분이며, 건축-실내판넬벽과 연결된 가구를 일컫는다. 이 가구는 후자와는 달리 스타일면과 유형면으로 볼 때 과거 루이 14세기부터 사용되었던 지식과 경험의 답습에 의한 것이 많고 주로 뫼블랑(meublant)¹⁹⁾의 개념이다. 후자 즉 안락하고 쾌적한 가구류는 의식적이고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매일 움직임

19) 하나의 방에서 전체적 효과를 이루는 한벌의 가구'란 명칭으로 색과 형태가 통일되어 전체효과를 기본성격을 보여준다.



(그림5) 건축적인 가구 - 소파와 서랍장 소파는 여기에서 벽과 일체를 이루는 등받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 있는 이동가구로 일상용가구의 개념이다. 가구는 더 이상 벽에 기대어 조용히 서있는 벽의 그림같은 존재가 아니라 방 내부중앙에서 사람들과 움직이며 옮겨지며 사용되는, 방 내부공간을 사람과 함께 채우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더욱이 이들 가구는 안락함과 즐거움의 관점에서 가볍고 작아지면서 가벼운 아름다움, 우아함을 강조하였고 유행에 민감하였으며 가구제작자들이 이룬 가장 큰 성공사례였다. 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적인 가구(건축 일체화가구)

- 콘솔과 뻘에 드 타블르(pied-de-table: 다리를 가진 벽 부착용 탁자) : 이들 가구는 독립된 가구라기 보다는 벽의 일부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
- 벽 부착용 의자류(sièges meublants) : 카나페(canapé: 작은 소파), 소파(sofa), 오토만(ottomane : 카나페의 일종으로 등판과 팔걸이가 등근형태로 일체화되고 있다), 장의자(banquette), 팔걸이 의자(fauteuil)-카나페, 소파, 오토만은 대개 패널벽 중간 혹은 거울벽 하부에 위치하면서, 의자 등판의 형태에 있어 벽과 장식상의 일치가 요구되거나 때로는 칫수, 다른 가구와의 관계로 인하여 벽 부착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다(그림 5 참조).

- 침대 : 많은 종류의 수면용 침대와 휴식용 침대가 있다.
- 대형가구 : 수납류 - 옷장(armoire), 서랍장(commode), 구석장(encoigner), 문서장(secrétaire), 장식장(cabinet), 낮은장(bas-d'armoire), 탁자류 - 책상(bureau), 식탁(table de salle à manger).

2. 안락하고 쾌적한 가구(일상용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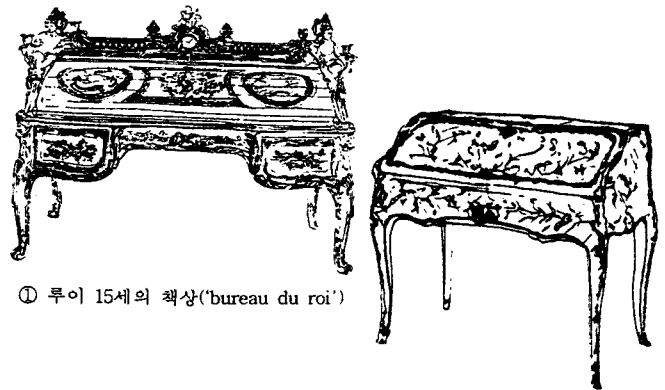
- 일상용 의자류(sièges courants)²⁰⁾ : 소형안락의자(cabriolet), 팔걸이 의자(bergère : 팔걸이 아래부분이 막혀있는 안락의자, fauteuil : 팔걸이 아래부분이 뚫려져 있으며 일상용, 책상용, 화장대용의 안락의자가 있다), 보조의자(chaise : 팔걸이가 없다), 카드놀이용 의자(voyeuse),

20) 벽부착용 의자류와 일상용 의자류의 차이는 목적, 용도 등 기능상의 분리이며 위치, 형태, 장식의 풍부함으로도 구별된다. 전자는 벽을 따라 화려하게 줄지어 서있는 주로 장식용 아름다운 가구의 역할이며, 후자는 빈번한 사용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명이 환담할 수 있도록 옮겨지며 사용되는 다소 작고 등근형태의 일상용의자이다(그림 2, 5 참조). 그리고 규모가 적은 방에서의 의자도 이 후자에 속한다.

등없는 소형의자(tabouret)

- 소형가구 : 수납류 - 작은 장식장(cabinet)

- 탁자류 - 쓰기용 탁자(table à écrire), 독서용 탁자(table à lire), 놀이용 탁자(table à jouer) 화장대(table à coiffer et toilette), 식탁(table à manger), 보조 탁자(table à servantes), 나이트테이블(table de nuit), 작업용 책상(table de travail), 사무용 소책상(bonheurdu-jour), 작은 원탁(guéri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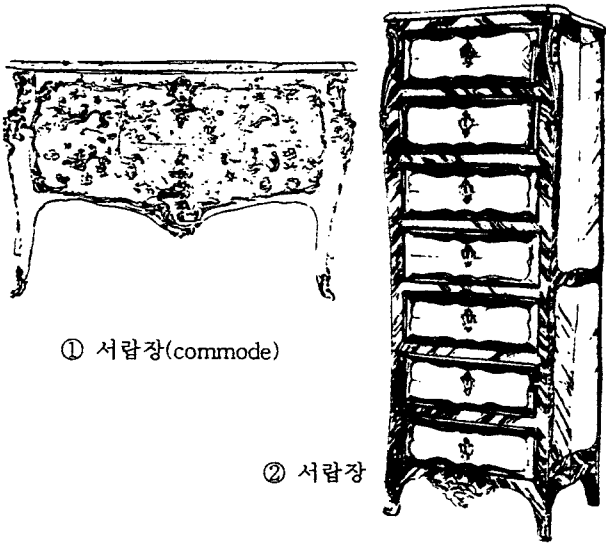
① 루이 15세의 책상('bureau du roi')

(그림6) 책상류

② 책상(bureau en dos d'ane)

B. 가구의 재료, 색

모든 종류의 가구재료는 나무가 기본이다. 나무재료는 매우 다양하였으나 참나무와 호두나무가 계속 모든 가구 재료의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야생벚나무, 서양너도밤나무, 느릅나무 또 각종 과일나무, 마호가니, 장미목, 자단 등이 애용되었다. 이처럼 여러종류의 재료가 사용되어진 것은 특히 에베니스트가구의 얇은무늬목 작업 및 상감수법에서 색감이 다른 무늬목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마호가니는 레전스시기부터 프랑스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가구목록에서 마호가니가구가 처음 언급된 것은 1740년 경부터이고 1755-60년경에는 가장 애용되었던 재료였는데 이는 로코코양식의 절정기와 일치되고 있어 로코코가구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재료라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충분히



① 서랍장(commode)

② 서랍장

(그림7) 수납용 가구

한 공급량, 저렴한 값과 더불어 조각과 칠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각종 나무 이외에도 동양의 옷칠판, 이를 모방한 베르니 마르탱 칠, 세브르 자기판 등이 가구표면으로 이용되었고 여기에 금빛 청동조각이 그 완성도를 더 해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대리석이 거의 모든 콘솔과 서랍장, 낮은 상자형 가구의 상판으로 이용되었다. 가구의 천 씌우기 작업은 로코코양식의 한 특징이었으며 완벽한 수준이었다. 그 재료로는 타피스리를 비롯하여 비단이 주종을 이루었고 가구의 곡선형태와의 조화를 위하여 직선패턴보다는 전체를 덮는 패턴의 문양이 애용되었다. 의자재료로는 의자를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새털을 넣은 폭신한 쿠션이 보완되어졌고 탄력있는 스프링이 처음 등장했다. 로코코 양식의 시기는 생생하고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했다. 과거의 격렬한 색상은 약간 완화되면서 대조도 약화되었으나 다색배합의 원칙은 계속 발전되어갔다. 이는 자연무늬목의 상감세공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 살아있는 듯한 장식문양, 금빛조각 등은 실내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강조되었으며, 특히 침대와 의자의 세련된 피복재료와 칠은 실내와 함께 보통 두 종류의 대칭되는 색-청색과 백색, 녹색과 백색, 장미색과 녹색, 분홍색과 백색, 황색과 은색 등으로 전형적인 로코코의 화미한 색을 표현해주고 있다.

C. 형태면에서의 특징

가구가 로코코양식을 취함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실내판넬벽과 함께 디자인되었거나 혹은 실내장식의 일부로서 계획된 종류 즉 건축적인 가구이다. 이들은 판넬벽에 붙어있는콘솔, 탁자들, 또 판넬벽의 곡선과 일치되는 벽 부착용 의자류 등이며, 로코코의 기본 양식 뿐 아니라 가구가 놓여지는 방의 특성 즉 고정된 벽장식, 장식 문양과 천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감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완벽한 로코코양식을 취했던 것이다.

실내장식에서 비대칭의 원리를 가졌던 로코코양식은 가구에서는 대칭을 기본형태로 삼고 있으며 가구표면의 정교한 장식에서 비대칭 및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과거의 엄격한 선, 직각을 피하고 크기가 작아지면서 곡선의 윤곽과 구부러진 다리를 취하는 형태가 하나의 규칙

이 되었다. 여러가구는 다리만 휘어진 형태가 아니라 연속된 곡선의 윤곽선안에서 몸체와 하나가 되고 있고, 마치 여성의 몸매에서 보는 듯한 굴곡의 곡선이 되어 '하나의 호감을 주는 윤곽'으로 움직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비만에 이를 정도의 곡선윤곽 또는 뱀 모양의 곡선(serpentine)의 몸체가, 휘어진 다리로 이어지고 그 밑의 암시슴 발의 형태로 끝을 맺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들 곡선은 우아하고 숙련된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자류의 커다란 분수령-1700년경으로 언급된다 이후 낮아진 높이, 넓어진 좌석, 곡선적이고 안락한 좌판의 방식(padding) 그리고 흐르는 곡선의 의자들은 크기도 작아지고 인체 치수가 고려되어 앉는 사람의 인체를 싸안듯 하나가 되었으며, 나아가 실내장식의 요소로써 조화를 이루어 가히 실내장식, 사용자-의복을 포함하여 들이 삼위일체를 이루었다고 본다.

D. 기술면에서의 특징

가구제작자의 기술은 완벽한 최고의 수준이었다. 하나의 가구를 위하여, 전문화된 각 장인을 통한 분리된 작업이 뮤니지에와 에베니스트의 이름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은 미의 완벽한 통합을 가져온 기술의 통합 문제이다. 몸체와 다리 각 부분의 결합 및 접합부분이 해체된 부재로 보여짐이 아닌 하나로 보여지는 연속된 곡선은 가구의 정신을 살리려 했던 기술 내지 기계도입의 결과인 것이다. 특히 가구(수납용 가구) 정면의 배가 부풀어오른 듯한 몸체에 자연적인 곧은 나무결을 이용하여 곡선형태의 집합물로 제작했음은 구조적이고도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 주고 있다.

콘솔이나 탁자류의 상판에 사용되고 있는 대리석, 이를 지탱하고 있는 부드러운 선의 목재가구, 이 목재가구 표면과 다리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청동조각은 각기 다른 세재료를 조합함으로써 화려한 장식성, 무거운 대리석의 지탱을 위한 구조성, 견고함, 나아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완벽한 기술에 의한 재료의 통일이었다. 더욱이 가구에 사용되어진 기계의 도입이다. 이는 특히 의자, 탁자류에 사용되었는데 가구의 변화에 따라 모든 종류의 기계고안품(multiples petits mecanism)이 가구속에 개폐될수 있는 여러 은폐공간을 갖추는데 사용되어진 것이다. 이는 작아진 방으로 인하여 작은 가구가 제작됨에따라 해체되고 닫아지면서 여러 용도를 지닌 소가구가 요구되면서 이들 기계품이 그 요구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V. 결론

18세기는 분명 모든 것이 활발해 졌으며 이에 편승하여 가구 사용은 확대되었고 발전도약의 시기였다. 그중에서도 로코코양식은 즐겁고 귀족적인 그리고 여성적인 삶의 명시이다. 이는 바로크 양식에서의 베르 사이유공간이 국가적 양식을 만들면서 프랑스 실내장식 가구의 빛나는 한 획을 그은 기초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왕실 스타일이 그곳의 사치와 함께 유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혹자는 로코코 양식을 사치와 향락에 도취된 감상적인 예술이라 평하였으나 이 사치가 로코코 사회를 부양하고 매혹시켰던 수단으로써 가구발전의 중요요인이 되었

음을 볼때 이 시대의 사치는 분명 긍정적이라 평할 수 있다. 분명 로코 코양식의 가구 특히 왕실가구-에베니스트가구는 사치속에서 이루어진 고가품이었다. 이는 왕실을 비롯하여 이들을 추종하던 소수특권층만이 이러한 가구를 누릴 수 있었고, 왕실에서의 후원보다는 추종자들이 왕실가구의 사치를 열망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보아 프랑스 로코코 가구의 형성은 주로 왕실 내지 소수특권층에서 주 고객이 되어 이루어졌고, 부를 축적한 계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치와 더불어 항상 새롭고 재미있으며 예상을 초월하는 유행의 추구하고 함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 내는 풍부한 상상력과 새로운 디자인, 높은 취향의 고객, 이를 표현하고 만족시켰던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진 가구제조인의 기술, 상인들의 창조를 겸한 판매전략, 이 모두가 로코코가구의 완성도를 향해가던 사회의 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루이 15세의 개인적인 삶의 취향은 사회의 안락한 사생활의 추구로 이어져, 많은 용도의 작고 아늑한 방이 새로운 건축과 기존건물의 개조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연히 가구의 크기도 작아지는 동시에 각 기능에 융합하는 많은 종류의 가구가 제작되었다. 이는 삶의 질을 높히려는 사치의 욕구가 큰 저택보다는 새로운 작은 공간에서 그 내부의 정교하고 많은 수의 소가구로 옮겨가기 때문이며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가구의 전문화작업으로 풀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리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양식에 근거한 가구인 점으로 보아 가히 독창적이라 평할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적이면서도 품위있는 곡선, 아름다운 비올과 우아한 조각, 견고함과 명쾌성을 지니면서 18세기 로코코사회가 추구하고 원하던 가구 즉 사람의 요구에 응한 가구,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충족시켰던 가구였다. 이는 가구가 더 이상 벽에 설치하여 보여지는 수동적인 개념의 가구로써뿐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과 함께 방 내부중앙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가며 들어오는 능동적인 가구의 개념으로 변화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욱이 18세기는 유명한 에베니스트 시대로 이들 뛰어난 제작자들에 의한 기술, 장인정신과 함께 고객의 취향과 태도, 상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주목할 만하고, 이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다르나, 디자이너와 생산자, 고객과 판매자의 역할은 가구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상관 관계를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수입품의 증가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가구업계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가적차원에서 각종 가구관련단체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가구디자이너협회, 가구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시대 우리생활과 조화되는 자체디자인의 개발이 시급하고, 가구디자이너 제품의 상설전시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홍보, 판매, 기획전시, 세미나등 교육과 계몽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토록하며, 둘째는 공업과 연계된 가구제조, 기술개발, 디자이너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나아가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독창적제품의 후원을 담당할 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대학에서의 가구디자인 전공이 좀 더 활성화되어 창조적인 디자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그림출처

그림1: Feray, J., Architecture Interieure et Décorations en Frauce dès origines a 1875. Paris: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 1988, p.303.

그림2: Feray, J., Architecture Interieure et Décorations en Frauce dès origines à 1875. Paris: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 1988, p.263.

그림5: Feray, J., Architecture Interieure et Décorations en Frauce dès origines à 1875. Paris:Berger-Levrault-Caisse nationale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 1988, pp.206-207, p257.

그림3,4,6,7: Constantino, R.T., How to know French Antiques, N.Y. : A Bramhall House Book, 1961, pp.46-52, pp.57-60, p.65.

참고문헌

1. Ball, V-K.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0.
2. Costantino, R.T., How to know French Antiques, New York : A Bramhall House Book, 1961.
3. Feray, J., Architecture Interieure et Décoration en France dès origines à 1875, Paris : Berger-Levrault-Caisse national des monuments historiques et des sites, 1988.
4. Hayward H., World Furniture, London : Paul Hamlyn, 1965.
5. Molesworth, H.-D., Meubles d'Art 544 chefs-d'oeuvre du XVIIe au XXe Siècle, Lausanne : Edita S.A., 1972.
6. Praz, M., Histoire de la Decoration d'interieur, Paris : Thames & Hudson, 1994.
7. Verlet, P., La maison du XVIIIe Siècle en France · Societe · Decoration · Mobilier, Fribourg; Office du Livre, 1966.
8. Verlet, P., Les Meubles Français du XVIIIe Siècl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2.
9. Whitehead, J., The French Interior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 Laurence Kings, 1992.
10. Wills, G., Baroni D. & Chiarelli B., Le Meuble des grands ebenistes aux designers, Paris : Nathan, 1984.
11. 부르델 저,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1 일상생활의 구조 上, 서울 : 까치, 1996.

〈접수 : 1996. 11. 4〉